

인류에게 밀크란



'밀크의 지구사' 하나 벨튼 지음

역할 이유, 밀크가 '하얀 묘약'인 건강 식품에서 영·유아 사망 주범으로 인식될 정도로 위험한 '독약'이 됐다가 완전 식품으로 거듭난 사연과 배경 등 막연했던 궁금증도 해결해준다. 프리랜서 작가이자 언론인인 저자 하나 벨튼은 '밀크의 지구사'를 통해 여태껏 막연하게 알고 있던 우유에 대한 역사와 이면을 촘촘하게 들려준다. 책장을 넘기다보면 우유의 산업화로 인해 양도 많고 생산도 편리한 소젖이 다른 포유동물의 젖을 제치고 밀크의 대명사가 된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뿐 아니라 인류가 언제부터 우유를 먹기 시작했고 어떻게 짠지, 왜 먹었는지, 비록, 영혼의 음식, 신들의 음식으로 불렸던 다양한 사연도 들여다볼 수 있다. 젖먹이를 둔 어머니들을 산업혁명의 현장인 공장으로 내몰기 위해 젖먹이들의 모유권을 박탈하고 불량 우유를 먹게 하면서 죽음으로 내몬 아픈 역사도 풀어냈다. 우유의 세계화가 서양에서 출발한 영양학에 기초한 '영양의 식민화'였다는 저자 주장도 설득

'콜라 싫어 싫어/홍차 싫어 싫어/새까만 커피 오우~노!/핫초코 싫어 싫어/사이다 싫어 싫어/새하얀 우유 오우~에!/맛좋고 색깔 좋고 영양도 최고/깔끔한 내 입맛에 우유가 딱이야/단백질 칼슘도 왕 비타민 가득/건강한 내 입맛엔 우유가 딱이야/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다 주세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가사와 멜로디 등으로 한 때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우유송이다. 어린이집 재물잔치에는 빠짐없이 등장했고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으로도 인기가 높았다. 굳이 노래가 아니더라도 매주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이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것 중 하나가 우유다. 완전식품의 대명사로 인식되면서 매일 아이들에게 권하는 필수 음료이기도 하다. 우유의 역사를 다룬 책 '밀크의 지구사'에 쉽게 손이 간 것도 그만큼 친숙함이 들어서다. 물론, 소젖 외에도 양젖, 말젖, 낙타젖, 순록젖, 당나귀젖 등 인류가 목축을 시작하면서 마신 동물 젖이 많은데도, 굳이 밀크를 우유(牛乳)로 변



《유메니스트 제공》

미국 대규모 도축장 '불편한 진실'

'12초마다 한 마리씩' 티머시 패키릿 지음

'12초마다 한 마리씩'은 미국 뉴스클대 정치학과 조교수인 티머시 패키릿이 한 도축장에 위장 취업해 들어 다본 체험기다. 직원 800여명이 철저한 분업 하에 기계적으로 맡은 일만 처리하고 12초마다 한 마리씩 도축돼 깔끔한 포장육으로 가공돼 나오는 곳, 연간 매출액이 8억2000만 달러에 달하면서 외부인 접근이 법적으로 제한된 곳에서 5개월 가장 체험한 내용이 르포를 방불케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물론, 도축업에 도사린 '어두운 진실'도 낱알이 폭로하고 있다. 간이 마치 기계 부품처럼 작업 라인 위로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저자는 회고했다. 저자는 그러면서도 인부들이 잔인한 도살 작업을 '업무'로 인지할 수 있는 이유를 정치학 이론 가운데 하나인 '시선의 정치학'(Politics of Sight)으로 분석하고 있다. 《애플북스·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다양한 인물들, 각각의 사연들

'나프탈렌' 백가흠 지음

'귀뚜라미가 온다' 등 세권의 소설 집을 펴낸 백가흠씨가 첫 장편소설 '나프탈렌'을 출간했다. 2001년 등단한 12년 차 작가가 이제야 첫 장편을 내놓는 건 꽤나 신중한 행보다. 소설의 배경은 산 속에 위치한 하느수련원. 이곳에 각각의 사연을 간직한 이들이 모여들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폐암 말기 선고를 받기 직전 남편이 어린 제자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된 양자, 그런 딸을 위해 자신의 모



든 것을 내놓은 김박이 여자, 노망 난 노모를 모시고 혼자 수련원을 경영해가는 원장, 혼란에 빠진 수련원을 두고 급전 관계로 얽힌 탈북자 최영래와 인부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얽히며 이야기는 계속된다. '현대문학'에 총 10회에 걸쳐 연재된 소설은 출간을 앞두고 지난 여름 EBS '라디오 연재소설'에서 낭독돼 호응을 얻었다. 《현대문학·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선택은 자유라는 믿음 속에 감춰진 칼날

'마음대로 고르세요' 켄트 그린필드 지음

하루에 몇 번씩 선택을 하며 살까. '아침 7시에 일어날까 조금 더 잠깐'부터 시작해 '머리를 감을까, 모자를 쓰고 갈까', '아침밥은 건너뛰까, 아니면 한 숟가락 뜰까' 등 평생 선택을 하며 사는 게 우리네 삶이다. '마음대로 고르세요'는 이런 우리 선택이 강요된 것이며 조작됐고 강제로 진행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뇌과학부터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사례를 아우르며 뒷받침한다. 저자 켄트 그린필드 미국 보스턴대 법학과 교수는 선택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실험실의 쥐처럼 강요된 선택지 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요소들이 우리 자유의지를



구속한다는 것으로, "그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선택이 없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선택은 네 자유다", "선택에 따른 책임은 네 몫"이라는 말은 그저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는 게 저자 주장이다. 또 선택의 순간에 대한 구속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의 조작에 휘둘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나는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모든 선택은 주변 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와 끈끈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함께 대처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푸른숲·1만3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밥 먹으며 나누는 논어 이야기, 지혜를 삼키다

'식탁 위의 논어' 송용준 지음

송용준 서울대 중문과 교수는 가족들을 상대로 8개월간 논어 강의를 했다. 고전에 담긴 지혜를 가족들이 이해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다 큰 두 딸과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기도 힘든 처지라 일요일 함께 먹으면서 가볍게 수다처럼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밥 먹으면서 논어 강의 듣는 게 쉽지 않았을텐데, 무척 재미있었다. 딸들은 이 내용을 팟캐스트(파일 형태의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올렸고 올 초 팟캐스트 인문학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음성을 듣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책이 곁에 있어서 보면서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권유로 만들어진 책이 '식탁 위의 논어'다. 학이편(學而篇), 위정편(為政篇), 팔일편(八佾篇) 등 20편으로 나눠 정리했고 강의의 핵심을 추려 한글 주해와 해설을 담았다. '백성을 떠나게 하는 정치', '부모의 곁을 지키는 도리', '공자의 맞춤형 교육', '인재를 알아보는 눈' 등 시대를 살면서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각 편에 오디오 강의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각 삽입돼 스마트폰으로 저자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페이퍼로드·1만48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학 속에 밥이 있고 밥 속에 문학이 있다

'허기진 인생, 맛있는 문학' 유승준 지음

'식사하셨어요?' 예전같이 없지만 그래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인사다. '허기진 인생, 맛있는 문학'은 출판계에서 오래 일해 온 유승준씨가 18명의 작가들에게 밥의 의미를 묻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밥에 관한 철학을 담았다. '문학 속에 밥이 있고 밥 속에 문학이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문학이 인간과 인생의 본질을 담아내는 예술인 만큼 먹고 사는 원초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고 나면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책은 이 때문에 독자들이 즐겨 있는 18편의 작품을



정하고 2부로 나눠 밥이 어떻게 녹아들어왔는지 작가와 함께 살핀다. 1부 '문학이 밥이다'에서는 한창훈의 '인생이 허기질 때 바다로 가라'를 비롯, 황석영의 '낮은 세상', 편혜영의 '저녁의 구애', 김재영의 '폭식', 김훈의 '흑산', 손흥규의 '이슬람 정육점', 백영옥의 '다이어트의 여왕' 등을 살폈다. 2부에는 박병식의 '비즈니스', 윤근은의 '1인용 식탁', 안도현 '남남', 신현림 '뽕은 유쾌하다', 손현주 '불라가죽 레시프', 허택 '러브앤 다이', 노경희 '뽕밭 엄마', 강순희 '행복한 우동가게' 등을 다루고 있다. 밥을 다룬 작품만 골라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소담출판사·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간

▲마하바라타 1~5=총 20권 중 5권이 인도 문화 전문가인 박경숙 쌤스크립트·빠알리 문학연구소장 번역으로 우선 출간됐다. 마하바라타는 '바라타족의 정정사를 읊은 대서사시'라는 의미로, 현재까지 인도 문명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상 모든 이야기의 원조'로 꼽힌다.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되 10만여 개에 이르는 시 가운데 4행과 6행으로 된 시만 운문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산문으로 풀어냈다. 《새물결·2만2000~2만7000원》

▲부채인간=이탈리아 출신 사회학자 겸 철학자 마우리치오 라자라토가 신자유주의에 유린당한 현대인의 삶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책. 부채가 개인의 도덕과 일상을 통제해 주체성을 잃은 '부채 인간'으로 몰락하게 한다는 게 저자 주장. 마르크스의 '대체와 은행', '자본', 니체의 '도덕의 계보' 등을 통해 부채 인간의 생산 과정을 보여주고 노동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분석한다. 《메디치·1만2000원》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지방대생에게 대기업 취업은 높은 벽이다. 제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기 쉽지 않고 인턴 지원서 접수조차 거부당하기도 한다. 대학생 광고대회 2년 연속 대상 수상 등 43회 공모전 및 경연대회 수상 실적에도 불구하고, 광고회사 인턴 지원서조차 거부당한 제갈현열씨,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지만 대기업 관문을 뚫지 못했던 김도연씨 등 계명대 출신 저자들이 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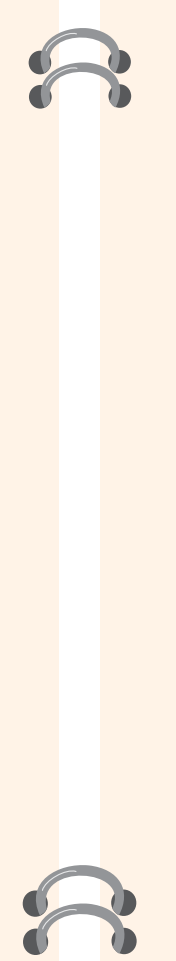


는 학벌 천국에서 살아남는 노하우와 마인드를 소개한다. 《쌤앤피커스·1만4000원》

▲미국 기술의 사회사=켄셀베이나이대 교수로 기술과 기술시스템의 변천사로 인간 역사를 파악하려는 기술사학자인 루스 슈워츠코완이 기술이라는 잣대로 미국 역사를 서술했다. 기술사 개론서 성격에 띠면서 사회, 경제, 문화까지 두루 아우르고 있는 게 특징. 농경 사회가 산업사회를 걸쳐 기술 과학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한편,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용한 도구부터 자동차, 컴퓨터, 항공기 등 오늘날 익숙한 기술까지 미국 기술의 역사를 충실하게 다룬다. 《구리·2만8000원》

▲나를 찾아 길 떠나는 도보 여행=도보 여행 카페 '인생길 따라 도보 여행'을 개설한 박용원 레이저라이팅 대표이사가 걸었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엮었다. 운동 삼아 시작했던 걷기부터 서울에서 삼천포까지 걸었던 9박 10일 간의 도보 여행이나 가고시마에서 도쿄까지 걸었던 여정, 중국과 한국, 일본을 잇는 도보 여행 등이 담겨 있다. 《책숲·1만5000원》

▲굿바이 미루기=당장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미루기 탈출 프로젝트로, 하루 15분 가볍게 따라 하면서 미루기 습관과 차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담겨 있다. 저자 제프리 쿨은 수많은 컨설팅 사례를 제시하며 미루기 습관의 원인을 알아보고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을 제공한다. 《기디언·1만2000원》



▲43번째 유령 저택-옥탑방에 유령이 산다=속한 공동묘지 길 43번지의 '유령 저택'에 입주한 어린이책 작가 그림플리자 이미 살고 있던 소년 드라마 호프, 유령 올드미스 스푸키와 함께 지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엮었다. 편지·이메일·신문·리플릿 등의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는 설정이 흥미롭다. 《시공주니어·9000원》

▲세상에서 제일 센 우린 아빠=부모님의 다양한 직업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호찬이의 아빠는 태권도 사범. 일기장에 서슴없이 아빠의 힘 자랑, 돈 자랑을 늘어놓는데, 같은 반 은지 아빠 직업이 교정직 공무원으로 '조폭 전문'이라는 말을 듣고 놀란다. 일일교사로 온 은지 아빠의 멋진 모습에 어른이 되면 교정직 공무원의 사위가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기 시작하는 호찬이의 얘기가 재미있다. 《사계절·8000원》

▲도대체 공부가 뭐야? =무조건 공부 잘하기를 강요받는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게 한다. 디자이너



와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두메 산골에서도 역척스럽게 공부에 매달리는 큰 언니와 작은 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막내 영희. 꿈을 위해서 마음 속 별을 따라가듯 마음을 다해 해야 하는 게 공부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바람의 아이들·8500원》

▲내일을 향해 강물을 차라=성적 때문에 갈등을 반복하다가 결국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초등학교 4학년 도윤이와 엄마의 상환, 심리를 깊이 있게 풀어낸다. 사춘기 아이들의 일상을 세밀하게 그려내면서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편,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문학과학사·9000원》

▲쉽고 재미있는 동양 고전 30=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논어', '맹자', '명심보감', '소학' 등을 초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기본 세우기, 역사 배우기, 나라와 민족사랑, 세계를 향한 열린 자세, 지도자의 길, 삶의 지혜 등 6가지 주제로 엮어냈다. 《그린북·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